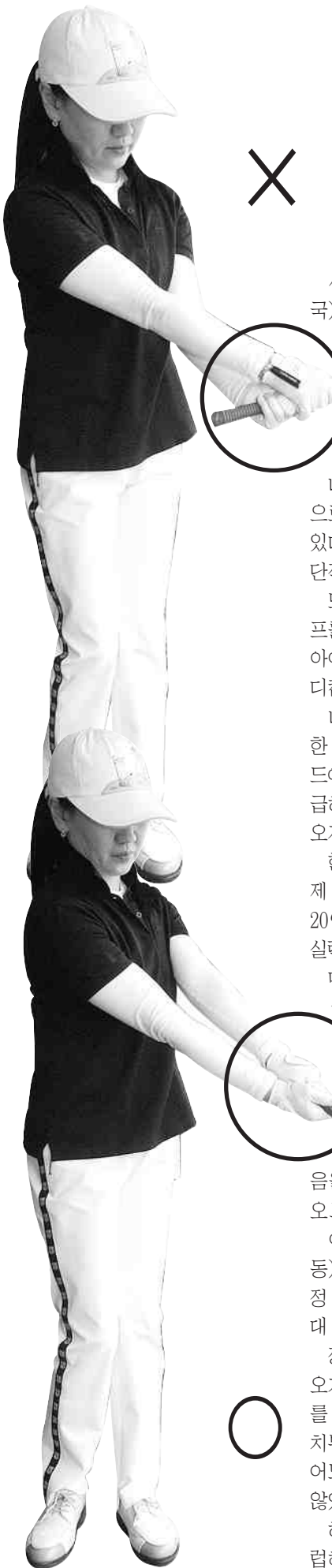


실전클리닉 & 즐거운 골프

주말판 광주일보 '스포츠'에서는 격주로 '실전 클리닉& 즐거운 골프'를 실고 있습니다. 프로 골퍼의 수준높은 무료 지도로 아마골퍼들의 실력 향상에 도움을 드리고자 합니다. 골프 클리닉 참여를 원하시는 독자께서는 광주일보 체육부(220-0663)로 문의 하시기 바랍니다.

슬라이스·혹 구질 잡으려면?

× 톱에서 클럽헤드 타깃 방향으로 향해야 예방



세계 골프의 거장 잭 니클로스(67·미국)가 최근 한국을 찾아 "한국 여자 골퍼들이 미국을 지배하고 있다"면서 미국여자프로골프(LPGA) 투어에서 활약하는 한국 선수의 활약을 높이 평가했다.

니클로스는 특히 한국 여자들은 세계적으로 인기가 많고, 미국 무대를 장악하고 있다"고 말해 한국 여자 골퍼들의 위상을 단적으로 말했다.

또한 니클로스는 아마추어 골퍼들이 골프를 잘 치기 위해서는 "자신을 정확히 알아야 한다. 자신의 실력을 제대로 알면 핸디캡을 줄일 수 있다"고 조언했다.

니클로스의 이말은 아마추어 골퍼들이 한 번쯤 음미해 볼 필요가 있다. 주말에 필드에 나가 스코어에 연연하고, 내기에 급급하다가 스트레스 한 톨 보따리 안고 돌아오는 것은 아닌가?

한 번쯤 스스로에게 물어보아야 한다. 실제 아마추어 골퍼들중 보기플레이어는 20%도 되지 않는다고 하니 구터어 자신의 실력을 부풀리거나 실망할 필요는 없다.

마음에 맞는 동반자들과 푸르른 대자연의 감상을 하고, 즐거운 이야기 꽃을 피우면서 즐기는 라운딩을 한다면 보약을 먹는 것보다 낫을 수 있다.

욕심을 버리고 자신에 충실한 골퍼를 즐겨보는 것은 어떨까? 말처럼 쉽지는 않겠지만 조금만 마음을 비우면 의외로 스코어도 잘나오고 기분좋은 골프를 즐길 수 있다.

이번호는 정미경 (40·서구 치평동) 주부가 골퍼클리닉을 노크했다. 정 씨는 골프에 입문한지 1년 된 90대 후반의 초보 골퍼.

정 씨는 "1년이 다 되도록 100대를 오가는 스코어를 줄이기 위해 김진철 프로를 찾았다"며 기대감을 나타냈다. 어프로치부터 점검에 들어간 김 프로는 정 씨의 어드레스나 자세가 좋다고 칭찬을 아끼지 않았다.

하지만 정 씨는 어프로치 피니쉬에서 클럽헤드가 탄이 되는 잘못된 습관을 보였다. 김 프로는 어프로치에서 클럽헤드가 탄이 되면 훅이 발생하기 때문에 그대로 직선으로 들려진 상태를 유지해야 한다고

손목코킹·어깨턴 익히려면 하프스윙 연습 도움

어프로치 샷, 손목 사용 자제해야 정확성 유지

말했다. 특히 김프로는 어프로치 샷을 할 때는 손목 사용을 되도록 자제해야만 정확하고 부드러운 어프로치를 할 수 있다고 말했다.

김프로의 지적을 받은 정 씨는 곧바로 탄이 없는 어프로치샷을 보여주는 감각을 발휘했다. 어프로치에서 칭찬을 받은 정 씨는 아이언 샷에 대한 조언을 부탁했다.

자신감 있게 스윙을 한 정 씨의 아이언 샷은 코킹이 되지 않은데다 어깨턴이 발생하지 않아 심한 슬라이스 구질을 보였다.

신장이 큰 정 씨는 스윙 궤도 등 기본적인 자세가 잘 갖춰져 있었으나 톱에서 코킹이 발생하지 않고 그대로 다운스윙을 시작하기 때문에 슬라이스가 심했다. 또 톱에서 클럽헤드가 타깃방향으로 향해야 하는 데 슬라이스 방향으로 향해 있어 다운스윙 발생초기부터 슬라이스 구질을 생산하는

잘못된 동작을 보였다. 김프로는 톱에서 클럽헤드의 방향은 항상 타깃을 향해야 하는데 슬라이스나 훅방향을 향할 경우 구질은 대부분 슬라이스나 훅으로 이어지게 된다고 말했다.

김프로는 손목코킹을 바로잡고 슬라이스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하프스윙 연습방법을 권했다. 하프스윙을 통해 손목코킹 감각을 익히고 어깨 턴에 대한 감각까지 익힐 수 있다는 것이 김 프로의 설명. 여기에 두발을 모으고 하프스윙을 하게 되면 좀 더 강한 임팩트와 함께 코킹과 턴에 대한 감각을 쉽게 익힐 수 있다고 말했다.

김프로는 연습장에서 무턱대고 공을 때리기 위해 폴스윙 연습을 하는 것 보다 적절한 시간 배분을 통해 하프스윙 10여분, 풀스윙을 20분 정도의 연습은 실력향상에 큰 도움이 된다고 말했다. 특히 하프스윙을 하게 되면 올바른 코킹과 릴리스 턴, 어

프로치 샷의 감각을 자연스럽게 익힐 수 있다는 것.

김프로는 슬라이스 구질을 예방하기 위한 두번째 방법으로 때리는 공의 궤도 위쪽(슬라이스 궤도)에 공을 하나 놓고 그 공을 맞추지 않기 위한 IN에서 IN으로 돌아가는 스윙을 하게 되면 슬라이스 구질을 예방할 수 있다고 말했다.

클리닉을 마치게 된 정 씨는 마지막으로 라운딩 전날 연습에 대해서 김프로의 조언을 구했다. 김프로는 라운딩 전날 무리한 스윙은 도리어 라운딩 당일 컨디션을 엉망으로 만들 수 있기 때문에 20여분 정도 정확한 스윙을 익히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김프로는 라운딩 전날 연습방법에 대해 드라이버를 때리고 난 후 자신의 볼이 몇m 남았다고 생각하고 아이언 샷을 하고 퍼팅을 하는 식의 실전연습을 권했다.

김프로는 이러한 연습은 집중력을 높여 다음날 실전에서 상당한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강조했다.

/최재호기자 lion@kwangju.co.kr
사진 = /니명주기자 mjna@kwangju.co.kr

지도 = 프로골퍼 김진철



▲테이크 백에서 톱에 이룰때 손목코킹이 인된 동작(왼쪽)과 손목코킹과 어깨턴이 된 잘못된 동작.



▲어깨턴, 손목코킹, 릴리스 턴 감각을 익히는데 도움이 되는 두발 모으고 하프스윙.



▲슬라이스를 바로잡기 위해서는 또 하나의 공을 놓고 그 공을 맞추지 않게 인사이드 스윙을 하면 된다.



▲톱에서 클럽헤드가 슬라이스 방향을 가리키는 잘못된 동작(위쪽)과 타깃 방향을 가리키는 잘못된 동작(위쪽)과 타깃 방향을 가리키는 잘못된 동작.



▲톱에서 클럽헤드가 슬라이스 방향을 가리키는 잘못된 동작(위쪽)과 타깃 방향을 가리키는 잘못된 동작.

▲어프로치 피니쉬에서 클럽을 던 한 잘못된 동작(위쪽)과 타깃방향으로 밀어올린 잘못된 동작.

작은 만남 큰 기쁨
광주일보, 친절할 서비스와 고객의 입장에서 모시겠습니다.

개업·성업 안내
구독신청 및 배달사고는 -
본사 시편부(062)222-8111

젤존돼지호남체인본부, 성균관한문학원, 등지다방, 은혜간병소개소, 정관정흥심안망사거리점, 김춘자빠사랑빠다귀, 최고루두암점, 굿모닝부동산사무소, 마재카정비센타, 활우식당, 유명브랜드상설할인매장, 하나의원, 팽큐당구장, 고구려캐피탈, 연예인라이브포차, 상운소머리국밥, 화인기업, 화정화웨이통, 영광Hits, 프로통상, 민속식당, 은누리세브란스약국, 광내과, 가도회수산, 완도항, 풍암허브샵, 동신종합애드, 버들공인중개사, 신창스튜디오, 동해도(구.대송), 두암현대실내골프연습장, 운남직업소개소, 만인드림방수, 서현악기, (주)송루(폐차)산업, 한국의원